

## 柳纘佑 방진회 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아

### 자주국방 기틀마련 공로 인정 받아



중업계 세계 『빅 3』 중 하나로 30만톤 생산 및 판매를 눈앞에 둔 굴지의 종합 銅 제조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류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70년부터 銅을 원자재로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소총탄에서 포탄에 이르기까지 각종 탄약을 자체 개발하고 독자적 생산체계를 구축해 국산화를 통

**‘방위** 산업 역사의 산 증인’으로 알려진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柳纘佑 회장이 자주국방 기틀마련과 국가 기간산업 육성에 평생을 바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5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지난 '68년,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銅제품 전문생산업체 (주)풍산을 설립한 류회장은 30여년간 오로지 비철금속(非鐵金屬) 한 업종에만 매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銅 전문기업으로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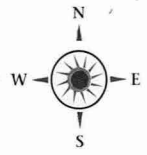
그 동안 (주)풍산은 전기, 전자, 자동차, 발전소, 건축자재, 반도체 등 전 산업분야에 필수적인 銅 소재의 자급자족을 실현, 산업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앞장서 우리 나라를 銅 강국으로 부상시켜 현재 동

한 자주국방의 기초를 다져왔다.

또한 17년 동안이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맡아 관련 제도 및 기구를 신설, 정비하고 심포지엄 등을 열어 국군 전력증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과 방위산업 육성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에 따라 류회장은 ‘풍산 銅파이프’ 신화와 함께 ‘한국 방산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왔다. 특히 “한 가지라도 세계 최고가 되어야 국가경제가 산다”고 기술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타 업종에 눈돌리지 않고 평생 한 업종에만 전력을 기울여 온 그의 경영철학은 이시대 기업가의 한 귀감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화용 소전(素錢-무늬를 새기지 않은 동전)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40여개국에 총 20만톤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교역량의 60% 가까이를



점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상품으로 키웠다. 특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EU 각국에 자체개발한 유로달러용 소전을 공급,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서애 류성룡 선생의 12대손인 류회장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서애기념사업회를 설립하는가 하면 안동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장학재단과 교육재단을 만들어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柳纘佑 회장은 방산육성을 위해 헌신하다가 훈장 수여 후 지난 11월 24일 宿患으로 他界하였다. 그동안의 공로를 기리며 삼가 冥福을 빈다.

## 국내개발 최신 K1A1 MBT 양산 개시

### 총 1조 규모로 2001년 첫 완제품 납품 개시

**한국** 軍의 주력전차 전투력을 세계최고수준으로 증강시킨 주포 120밀리급의 '차세대 K1A1전차'가 드디어 실전배치를 위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현대정공(주)(대표이사: 朴正仁)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협력으로 자체 개발한 '한국형 K1A1전차'의 공급계약을 국방부 조달본부와 체결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현대정공은 약 1조원 규모의 최신형 성능개량전차를 양산, 국방부에 공급하며, 2001년 첫 완제품 납품을 개시한다.

K1A1전차는 120밀리 주포, 전차장 및 포수석 열영상조준장비, 32비트 디지털 탄도계산기, 특수복합장갑 등을 갖춰 기존 K1전차(일명 88전차)의 화력, 명중률, 방호력, 기동력을 대폭 향상시킨 성능개량전차로 시제품 2대가 개발 완료된 상태다.

이 시제품은 지난해까지 국내의 모든 지형과 기상 조건

하에서 실시된 軍시행 성능입증시험에서 軍요구치를 훨씬 웃도는 성적으로 통과, 양산과 실전배치만을 기다려 왔었다.

이번에 현대정공이 양산하는 K1A1전차의 특징은 첫째, **화력 면에서** 120밀리 활강포를 주포로 채택하여 105밀리 주포급 전차에 비해 파괴력과 유효사거리를 2배 이상 향상시켰다.

현재 미국 M1A2, 독일 레오파드 II 등 서방선진국의 주력전차들도 모두 120밀리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도입하고 있는 러시아제 T-72나 T-80 등은 모두 125밀리 활강포를 장착한 제품들이다.

둘째, **명중률 면에서** K1A1은 전차장과 포수가 야간과 연막 속에서도 표적을 관측할 수 있어 주야간 작전가능한 열영상조준장비와 독자 개발한 32비트 디지털 탄도계산기,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최첨단 사격통제장치를 갖춰 세계 최고수준의 사격정확도를 자랑한다.

차세대 한국형 K1A1 전차 제원표

구 분	K1A1
승 무 원	4명
전투중량	54.5톤
길 이	9.71m
높 이	2.25m
폭	3.59m
엔진출력	1200마력 (디젤)
최고속도	65km/H
변 속 기	자동
항속거리	400km 이상
주 포	120mm 활강포
유효사거리	2.5km
사격통제장치	- 열영상조준장비 (전차장/포수석 모두 장착) - 32비트 디지털 탄도계산기 - 레이저 거리측정기 - Hunter Killer 기능 - 2축 안정화장치
부 무 장	- 공축기관총 - 탄약수기관총 - 전차장기관총
장갑구조	특수복합장갑
현수장치	유기압식 토션바 혼합형 현수장치

특히 K1A1전차는 한국의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된 특수유압 현수장치(Suspension)를 장착해 세계최초로 하

향사격이 가능하며, 포와 포탑이 기동장치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2축 안정화장치를 갖춰 굴곡이 심한 산악지대를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이밖에 K1A1전차는 포수가 자신의 목표적을 포착하는 동안,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소방향의 표적들을 관측해 최우선 표적을 새로 지정해 전차장이 사격할 수 있는 헌터 킬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셋째, 방호력 면에서** K1A1전차는 세계 유수의 전차들보다도 낮은 차체로 설계돼 적군 화기에 노출을 최소화했고, 장갑판재도 가벼우면서 고강도인 國產 특수복합장갑을 사용하여 뛰어난 생존력을 갖췄다.

**넷째, 기동성 면에서** K1A1전차는 54.5톤의 전투중량에 1200마력의 고성능 디젤엔진과 쏘자동식 변속기를 탑재하여 최고 시속 65km로 달릴 수 있으며, 길이 2.2m의 강물을 특수장비 없이 건널 수 있다.

또한 산악이 많은 한국지형에 적합하도록 유기압식 고강도 토션바를 장착해 야지 및 험로에서도 시속 4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 승차감 역시 대폭 향상돼 장시간 탑승에도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성능이 대폭 강화된 차세대 전차의 양산으로 우리 육군은 보유 전차의 성능에서 북한 보유 전차보다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우리 나라는 이번 K1A1전차

공급계약으로 명실공히 최첨단 차세대 전차생산국으로서 미국, 독일, 영국 등 전차개발 선진국과 동등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정공은 이번 계약과는 별도로 2조 규모의 동남아시아 시장에 자체 개발한 K1 전차 및 계열전차의 수출과 유럽지역에 전차부품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IMF 등으로 주춤했던 방위산업분야에서 대폭적인 매출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 제7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열려

### 미래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신 무기체계 정보 교류

#### 새천년

을 맞아 산·학·연·군 관련요원의

최신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미래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상무기체계 발전과 소요 제안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제7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11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사·국과연·방진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가 후원한 금번 세미나는 21세기 전략환경에 대비한 지상무기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방부, 합참, 육군 등 군 관련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방부 이원형 획득정책국장의 「2000년대 무기체계 획득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과 교육사 이은재 무기체계처장의 「육군 VISION 2010



무기체계 발전방향」, 국과연 허주 민·군 겸용기술센터장의 「민·군 겸용기술 사업소개」를 비롯하여 군기관 및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총 53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올러, 논문발표와 함께 최신 국내 연구개발된 다수의 지상무기체계 장비 및 핵심기술 부품들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방위력 개선 및 연구개발 관련부서에서 75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최신 무기체계 기술정보 교환 및 상호 업무 협조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군에서 전장기능 발전개념에 의한 운용측면의 발전방향과, 연구/개발기관에서 개발/기술적 측면의 발전방향을 제기해 지상전장 운영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30밀리 자주대공포 飛虎 시험 발사

### 최초 국내 자체 설계 제작한 첨단무기체계로 올해말 실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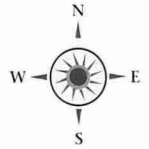
**육군** 은 지난 11월 19일 서해안 사격장에서 김형보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민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밀리 자주대공포(일명 『비호』) 시험사격을 가졌다.

이날 선보인 『비호』는 지난 '83년부터 연구개발하기 시작, 1992년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 자체설계 제작한 최초의 저고도 대공포로 그 동안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방산업체 기술진에 의해 성능이 보완되어 양산체제를

갖춘 것으로 육군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와 공군의 비행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저고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호』는 520마력, 최고 시속 65km의 장갑차체에 30밀리 쌍열 대공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고성능 탐지레이더와 고성능 열상추적장치에 의해 자동추적이 가능한 전자광학추적기를 장착하고, 사격제원을 실시간 고속처리할 수 있는 탄도계산 컴퓨터가 내장되어 즉각 사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원과 성능을 통해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항공기를 주·야간에 신속히 탐지 제압할 수 있고, 야전군 기갑부대와 입체고속기동전이 가능하다.

『비호』가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되면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 실정에서 저고도 적 항공기 침투에 대비한 대공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은 물론 국산화율이 70%인 『비호』의 양산체제 가동으로 대공화기 수입국에서 자체생산과 해외판매까지 가능한 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성능 및 제원

구 분	성능 및 제원
구 경	30밀리×쌍열
유효사거리	3km
발사속도	1,200발/분
탐지거리	17km 이상
추적거리	7km 이상
사격능력	주·야간

## 제10회 화랑대 국제 학술 심포지엄 열려

### 행동과학분과와 정보 전자전분과 총 16편의 논문 발표



Leboeuf박사의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추세와 요구되는 군 리더십 방향”이라는 주제하의 기초연설에 이어, 행동과학분과와 정보 전자전분과의 2개 분과에서 총 16편의 논문이 국내외 학자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군사 연구와 과학기술 개발의 증진을 목표로 198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 규모의 군사 학술회의로 자리잡은 화랑대 국제 심포

**미래전**에 대비할 군사 과학기술에 관한 제10회 화랑대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10월 29일 육군의 요람인 화랑대 육군사관학교(학교장 중장 오남영)에서 “군사연구와 과학기술”이라는 주제하에 국내외의 석학 및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 발표 및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1981년 “군대와 국가발전”을 주제로 1회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번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육사 리더십 교수인 Joseph N. G.

지엄은 그 동안 국내외의 학자, 방산업체 및 연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미래전에 대비할 안보전략, 민군관계, 국방관리, 정신전력, 첨단무기체계와 전자정보, 군사시설 등을 다루어 왔다.

이번에는 특히 외국군의 리더십 교육체계를 살펴보고 이와 대비되는 한국군의 지휘 통솔 모형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디지털 전장 환경에 대비한 군 종합 정보통신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성과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시종 진지하게 진행되었다.